

## 2020 주일메세지

### 위기에 처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살아남습니다.

---

#### 1.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누가복음 10:27]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한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의 특징은 '영적인 질문'이다. 모든 종교에는 '내세적 세계관'이 있다.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일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종교라는 그릇이 담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영생'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26절)" 라고 반문하신다.

누가복음 10:27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교사의 대답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대답한다.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핵심은 그 뒤의 말씀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놀라운 말씀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즉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결국 사랑에 관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율법교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영생에 대한 영적인 질문 앞에 율법 교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또 질문한다. 29절에 보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신다.

#### 2. 내 이웃은?

##### (1) 내 이웃은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30절부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될 지경이 된 사람이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다.

'이웃'에 대한 율법교사의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독교는 본질 위에 선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왜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 이유는 율법 교사처럼 아직도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웃이 사라진 신앙은 본질에서 멀어진 종교적 신앙이다.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나'가 중심이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다. 본질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형식만 남아있다. 형식의 틀이 본질이 되어버린 것이 종교이다. 생명과 관계없는 형식이 생명보다 위에 있는 것이 종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져 있다.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한다.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오셨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2:17]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필요가 있는 곳에 도움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사랑'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

## (2)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신앙은 '종교'이다.

[누가복음 10:31-32]

31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수님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예로 말씀하신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정체성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웃이 실종된 종교화된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웃이 없으니 하나님 사랑도 없다. 그런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 (3) 선한 사마리아인의 지갑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과는 적대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을 예로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0:33-35]

33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34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35 다음 날, 그는 두 테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사랑의 핵심은 '이웃'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그 이웃은 내가 돌보아야 할 이웃을 말한다. 사마리아인은 그 이웃이 있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33절). 공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를 아무 조건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공훈의 마음이며,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는 실재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 자기의 지갑을 열어 두 테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다(35절). 사마리아인의 이웃을 향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여는 일이었다. 그리고 비용을 내는 일이었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에서 나온 재정을 통해 죽어가는 이웃은 살아난다.

### 3. 내 이웃은 누구인가? 사마리아인의 축복을 받으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생명의 문제와 함께 경제적 위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사형이다. 강도만난 위기에 처한 이웃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지갑'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위기에 처한 이웃을 향한 측은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교회여, 그리고 성도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지갑의 축복을 받으라. 파산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먹일 수 있는 아버지 집의 축복을 사모하라.

'이웃'이 있는가? 코로나 위기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이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누가 네 이웃인가?'

[누가복음 10:36-37]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